

# 군산시, 벼 우량종자 확보 '총력'

### 신동진벼 346톤 확보... 자율교환 알선창구 운영... 새누리벼 등 밥쌀용 고품질 품종 추가 확보

신동진벼 종자 수발아 발생 비상 상황 속에서 군산시가 종자 발아검사 494점을 실시하고 사전 육묘시험으로 346톤 우량종자를 확보해 눈길을 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력품종인 신동진벼가 지난해 가을 등숙기에 잦은 강우와 이상 고온으로 정부 보급종 생산단지에서도 수발아가 다수 발생해 보급종 공급이 전년 대비 60%로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해부터 긴급 종자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우량종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종자 수급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한 종자재종 사업단지 종자에 대한 정밀종자검사로 1차 210톤을 확보하고 부족한 종자는 수발아 현상이 적은 2모작에서 생산한 종자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136톤을 2차로 확보했고, 이달 말까지 우량종자 자율교환 알선창구를 운영하여 종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결정된 신동진벼 외에도 새누리벼를 포함한 밥쌀용 고품질 품종을 국립식량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종자검사와 육묘검사를 마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답에서 생산한 종자를 포함 총 666톤(전체종자소요량의 103%)의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여 4월 말까지는 총 종자 소요량의 120%를 목표로 100여 톤의 종자를 추가로 알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벼 종자가 필요한 농업인들은 각 읍면상당소나 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하면 필요한 벼 종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며 벼 종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종자상태 및 비상 수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실시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2회 1,500여명, 식량작물 시범사업 대상농가 10회 165명, 이장협의회 및 학습단체 교육 22회 215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했다. /군산=장현 기자



## 은혜와 감사의 손편지 쓰기 행사

### 원광대, 원불교 대각개교절 '대각 빵 나눔' 행사도 진행

원광대학교는 오는 28일 원불교 대각개교절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은혜와 감사의 손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한다.

13일부터 시작한 손편지 쓰기 행사는 교내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한의대 인근에 설치된 우체통 앞에서 편지와 봉투를 나눠주고, 가족이나 은사, 자녀 또는 제자들에게 격려, 감사, 존경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쓰도록 함으로써 훈훈한 학풍조성에 기여하고, 서로 소중한 은혜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3곳의 우체통을 통해 수집된 손편지는 대학교당에서 수거해 선물과 함께 해당 주소지로 발송된다.

지난해 전북지방우정청 주최로 열린 '2016 전북 은고를 100만 편지 쓰기' 행사에서 우수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상을 받은 원광대는 지속적으로 전북지방우정청과 전북은고를 100만 편지쓰기에 동참할 계획이며, 이날 손편지 쓰기 행사 개최식에는 김병수 전북지방우정청장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원광대는 손편지 쓰기 행사와 함께 원불교 열린 날을 경축하는 '대각 빵 나눔' 행사를 벌여 원불교 개교 의미를 되새겼으며, 13일 진행된 대각 빵 나눔 행사에는 김도중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즐거움'의 축제를 열었다.

신지겸 교무는 "원불교 대각개교절 경축과 원광대 교훈인 '지덕겸수 도의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손편지 쓰기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며,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대학생들 군산 도시재생 돕는다

군산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더 젊고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다.

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지역 경관개선과 관광자원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해 '2017 도시재생 불론티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7년 도시재생 대학'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호원대학교 건축학과(유희중 교수)와 군산대학교 미술대학(박정희 교수) 소속 학생과 교수 등 5개 팀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10일 호원대학교, 13일에는 군산대학교가 군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각각 개강식을 개최하고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곳곳을 돌아보며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발돋움에 나섰다.

'도시재생 불론티어'는 각 학과 정규수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1학기가 종료되는 6월 중순에 팀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역 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군산=장현 기자

## 원광대 평생교육원, '연극요법 플래너 자격증 과정' 인기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연극요법 플래너 자격증 과정'이 서울과 경기 등 익산 외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평생교육 과정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극요법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연극을 통한 예술적 체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증상 완화와 더불어 심신통합 및 안정에 도움을 주는 통합의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10월 신설된 이 과정은 현재 2기까지 수료했으며, 총 44명의 수료생 가운데 서울·경기 7명, 충남 1명, 익산을 제외한 전북지역에서 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욱 감독, MBC성우회장 황윤걸 교수, 모델 출신 이복영 교수를 비롯해 힐링치료 임마중 교수, 실전 웃음치료 이빛나 교수, 탤런트 한인수 씨 등이 교수진으로 나서 수강생들을 직접 지도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 총 30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심리치료, 연극기법, 스피치훈련, 실전 웃음치료, 실전 치매 예방교육, fun리더십, 감정노동요법, 실버 체조, 노인건강지도, 소통 커뮤니케이션, 인성교육, 힐링지도, 스트레스 관리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수료 후 자격증이 주어진다.

한편, 원광대 평생교육원은 연극요법에 대한 열정 하나로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에게 향후 심화과정 지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연극 무대공연을 시행할 계획이며, 제3기 과정은 5월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연극요법 플래너 자격증 과정'이 서울과 경기 등 익산 외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 농해수위, 익산농기센터 방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위위원회 전문위원 등 관계자들이 익산시농업기술센터 현안업무와 과학영농시설 현황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농촌진흥청에서 모범기관으로 익산시농업기술센터를 추천하여 농해수위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문한 것이다.

이상구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익산의 농촌지도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친환경농업관리를 비롯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직배양실, 친환경미생물 관리실, 농업인교육관과 주말농장 운영 현황을 시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인구증가 신규시책 본격 추진

### 담당부서 실무회의 개최... 전입자에게 학자금·장려금 지급 등 혜택

익산시는 14일자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인구증가 신규시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각종 지원 사업 시행에 앞서 분야별 담당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해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 제정된 조례를 통해 타 지역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시민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학(원)생, 고등학생에 학자금

지급(학기별 10만원), ▲기관·단체, 군부대, 기업체 등의 임직원들이 집단전입시 장려금 지급(1인당 10만원), ▲익산사랑카드 발급을 통해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50%할인, 보석박물관 무료입장, 익산 시티투어 무료탑승 등 문화시설 이용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전입즉시 쓰레기봉투와 태극기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원)생,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급과 집단전입 장려금은 올해 1

월1일 전입자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며, 익산사랑카드 발급 및 쓰레기봉투, 태극기 지급 등은 오는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익산시 인구 30만명 사수를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며 "단순한 인구증가가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주민 소득 증대 및 인구유입 등의 선순환 효과 창출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 찾아

정현을 익산시장은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만경강 제방길을 직접 걸으며 현장행정을 펼쳤다.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익산시 6개 지구 중 목천, 신지, 춘포 3개 지구는 총연장 15.7km에 사업비 804억원으로 2012년 7월 공사 착공해 2016년 12월 준공했다. 나머지 3개지구(반

## 익산시, 전국체전 성공개최 사전 협조 회의 열어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시청 상황실에서 13개 주요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사전 협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도시경관 정비, 숙박지원대책, 국화축제 연계 등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점검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 군산시 GUNSAN CITY